

한민족의 전통복식문화 계승 작업에 있어서 남북한 비교연구

- 여자 저고리 구성에 나타난 변화를 중심으로 -

정 예 경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Comparative Study of Traditional Costume Succession in South and North Korea

- Focus on Transition of Women's Jegory Construction -

Hye-Gyung Chung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2006. 1. 2 투고)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research into the traditional costume succession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to compare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kinds, names, drawing of Jegory. Conclusions are described as follows:

1. In sort of Jegory, south and north korea have same kind of Jegory according to traditional form. But in making method, south korea have pursued various style from traditional type to modern type, north korea have maintained just simple and practical basic style.
2. South and north korea have used same or similar names for the basic part of Jegory. But north korea has made new names for constructional needs, so many differences were shown in the name of details.
3. In drawing of Jegory, north korea has hold traditional method and then tried to seek for rational, scientific technique. Also, due to the influence of south korea that advanced in modern aesthetic, drawing of Jegory in north korea were changed to similar.

Key words: traditional costume(전통 의상), similarity(동질성), difference(이질성), Jegory(저고리), drawing(제도)

I. 서론

우리민족은 급변하는 근현대사 속에서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으며, 다양한 환경으로 전파된 전통문화는 각 지역마다 독특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된 전통문화 속에는 전통의 원래적 요소 즉 정통성이 남아있지만, 그 정통성은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민족이 흩어져 있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통복식의 현대적 계승발전과정이 서로 다른 점을 고찰하여,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종합적 좌표를 설정하기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지향하는 이념이 달라 전통문화의 계승 작업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전통복식 계승작업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북한관련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수된 자료 또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대외용으로 출판된 경우가 많아 주의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북한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까지는 한국이 중심이라고 보기 어려웠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에 북한전문 연구자들이 배출되고 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¹⁾. 또한 대부분의 북한관련 연구는 정치, 경제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남한에서 이루어진 북한 복식에 대한 연구는 북한 문화전반에 대한 연구의 일부분으로서 주민생활 실태에 대한 현상파학²⁾이나 민속학적인 측면³⁾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며 전문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북한 전통복식에 대한 연구로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의 흐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한 개괄적 연구⁴⁾가 있어 이전에 비하여 보다 전문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제 북한복식에 대한 연구는 여기에서 나아가 남북한 복식을 비교하며 차이점을 분석하여 상호 이해를 돋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야할 시점에 있다고 본다.

북한에서 이루어진 전통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과거에는 민속학적 입장에서의 복식사 연구⁵⁾가 주된 내용이었지만, 80년대 이후 복식의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설계방안 연구⁶⁾와 90년대 이후 현대적 감각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개발하는 작업⁷⁾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북한의 조선옷은 현대성과 민족성⁸⁾, 즉 시대적 미감과 민족적 특성⁹⁾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며, 과학적인 설계 역시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통복식의 종류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북한에서는 남자의 경우 조선옷이 생산활동에 편리하지 못하고 과거 계급신분적 제약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여 양복을 입고 있는 실정이며, 일상복으로서는 여성과 어린이만이 주로 조선옷을 착용하고 있다¹⁰⁾.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남북한 전통복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여성의 저고리로 제한하였으며, 그 구성적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남북한 모두에게 있어서 전통복식의 계승이라는 문화적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타난 차이점을 여자 저고리의 구성적 변화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남한과 북한의 전통복식에 있어서 상호 이질적인 면에 대해 이해하며 민족적 동질성을 이루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남북한에 있어서 전통복식의 계승이라는 문화적 작업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서 한민족 전통복식문화의 좌표를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범위로 한정된 여성 전통복식의 구성측면에서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설정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저고리의 종류에 있어서 남북한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둘째, 여자저고리 각 부위별 명칭에 있어서 남북한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셋째, 여자 저고리 제도법의 변화에 있어서 남북

한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남북한 간행의 전문서적 및 잡지 등 자료를 분석한 이론적 고찰이다. 남한의 전통복식관련 자료로는 한복 전문 월간잡지와 한복구성에 대한 선행연구들 및 북한의 복에 대한 제 연구를 참조하였으며, 북한의 자료로는 잡지와 북한 의생활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북한자료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주로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90년대 이후에 출간된 것으로 「웃과 웃차림」(자료1), 「조선민족웃」(자료2), 「조선민족의상」(자료3), 「아름다운 조선웃」(자료4), 「웃설계와 재단」(자료5), 「웃도안과 설계」(자료6), 「민족웃」(자료7), 「웃본보기」(자료8) 등이 있다¹¹⁾. 이하 본문에서는 각각 자료1~8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모두 전통복식문화의 계승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였지만, 각기 어떤 방향으로 나아왔는지 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비교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II. 여자 저고리의 종류

현재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고리의 종류를 형태 및 제작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여자저고리 종류(남북한 비교)

	형태에 따른 분류	제작법에 따른 분류
북한	보통저고리 회장저고리 (반회장, 삼회장) 색동저고리 (까치저고리)	겹저고리 겉 밖이 저고리 적삼
	보통저고리 (민저고리) 회장저고리 (반회장, 삼회장) 색동저고리 개량저고리 (생활한복 저고리)	물겹저고리 박이겹저고리 적삼 깨끼저고리 솜저고리 누비저고리
남한		

1. 형태에 따른 분류

저고리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남북한 모두 전통적인 저고리의 종류인 보통저고리, 회장저고리, 색동저고리를 계승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형태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적인 설계방법도 적극 장려되어 새로운 제도법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북한의 전통복식 변화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사회주의 생활양식론'¹²⁾에 따라 민족적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는 의복구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설계변화에 대한 예로서 1994년도 조선웃 품평회에서는 '최근 설계된 저고리는 양장을 선호하는 여성에게도 인기가 있으며, 어깨에서 앞가슴쪽의 주름을 없앤다' 또는 '새 재단으로 어깨에서 가슴부위의 주름을 없앤다'고 하였다¹³⁾. 또한 변순애(1998)는 치수측정부위의 변화, 설계방법의 변화, 호수체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설계방법에 있어서는 서양복의 기본원형을 기초로 조선웃 설계방법을 고안하여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깨구김과 가슴을 압박하는 현상을 없애고 저고리가 뒤로 젖혀지거나 걸을때 배래선이 앞으로 나오는 결함을 극복하였다¹⁴⁾. 리유미(1999)는 저고리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미적으로 맵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토대위에 입체설계방법을 고안하였다¹⁵⁾. 여기서 입체설계란 한복의 평면설계에 대하여 서양복 구성법을 응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입체설계에 의하여 현대화된 여자 저고리는 깃 길이가 늦추어지고 깃의 뒷부분이 목에 붙지 않던 결함이 없어졌으며, 저고리 어깨부위의 주름이 없어지고 소매로 자연스럽게 처리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결과는 아직 일반인의 의복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으며, 품평회 등의 패션쇼 비디오 자료¹⁶⁾에 소개되고 있는 정도이다.

남한에서는 전통적인 저고리 형태 이외에 변형된 개량저고리가 등장하여 이제 전통의상의 한 부부분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개화기 이후 등장한 개량저고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생활한복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전통적인 저고리 형태의 변형뿐 아니라 서양복 구성과 디자인을 가미

한 것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폭이 매우 넓다. 북한에서는 이 개량저고리에 대하여 깃과 동정, 고름, 도련선과 배래선을 없애면 조선옷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전통성을 상실한 의상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⁷⁾. 이처럼 남한의 개량저고리가 형태상으로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형태적 정통성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2. 제작법에 따른 분류

북한의 최근 자료에 소개되고 있는 저고리 제작법은 겹저고리, 걸박이저고리, 적삼이 있었다. 그 외 『조선말대사전』에는 물겹저고리, 박이저고리(박음저고리), 상침저고리, 솜저고리(핫저고리), 누비저고리 등이 소개되고 있었으며, 또 조선시대의 저고리로 적삼, 깨끼저고리, 겹저고리, 누비저고리, 솜저고리, 차렵저고리 등이 소개되고 있다¹⁸⁾. 이 가운데 겹저고리와 적삼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저고리 제작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겹저고리는 솜을 두지 않고 겹으로 지은 저고리로 겉감에 안감을 받쳐 만들었으며 솔기를 자르지 않고 모두 안으로 넣어두는 것이다¹⁹⁾.

걸박이 저고리는 겹저고리 바느질과 같으나 저고리 안감과 겉감을 각각 만든 후 두겹으로 박을 때에 걸박이²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민족옷』의 걸박이 저고리 제작법에 의하면 겹저고리와 비슷하지만 두겹박기를 할 때 도련선과 소매부리는 박음질한 후 혼술전체를 1cm 남겨놓고 베어버린 다음 안감쪽에 다시 박음질하여 겹저고리와 걸박이 저고리는 구별되었다²¹⁾. 한편 『옷과 옷차림』에서는 겹저고리의 경우에도 도련선을 박은 후 뒤집어서 겉만 제껴놓고 안쪽에서 걸박이를 하였다²²⁾.

적삼은 『옷과 옷차림』(1991)에 의하면 등바대 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나²³⁾, 『조선민족옷』(1995)는 여름철에 입을 수 있는 얇고 비치는 재질의 천으로 저고리를 만들 때 길과 소매, 셀을 잇달아 마름질하여 만든 저고리²⁴⁾라 하여 과거의 적삼과는 달리 남한의 깨끼저고리 마름질과 동일하고 바느질

도 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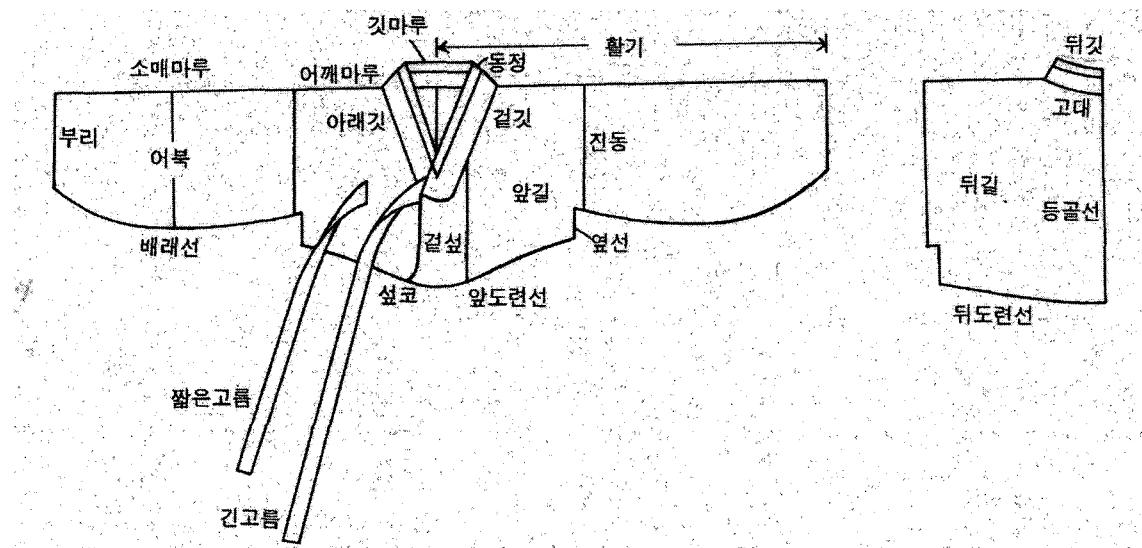
그 외 사전에 소개되고 있는 저고리의 명칭들로 물겹저고리는 호아서 지은 겹저고리라고²⁵⁾하였으며, 박이저고리는 안팎을 같은 천으로 곱박아서²⁶⁾ 만든 저고리로서 박음저고리라고도 하였다. 상침저고리는 『조선말대사전』의 걸박이저고리에 대한 설명에서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만 설명하였지만, '상침'을 조선말로 쉽게 다듬어서 고친 말이 걸박이'라고 하였으므로 두 용어는 유사하게 사용된 듯하다. 차렵저고리는 솜을 약간 두어서 겹저고리와 같이 지은 저고리이다.

남한의 경우 현재 널리 사용되는 제작법으로는 물겹저고리, 깨끼저고리, 적삼 등이 있으며, 최근 누비저고리 등 과거의 전통적인 제작방법이 복원되어 사용되고 있다. 물겹저고리는 시접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고 마름질한 것이며, 박이겹저고리는 시접을 좁게 잘라버리고 겹으로 지은 것이다. 그 외에도 삼겹저고리²⁷⁾, 보통겹저고리, 솜저고리 등이 있다.

III. 여자저고리의 부분 명칭

저고리의 부분명칭은 구성상으로 본 각 부분별 명칭이 있으며, 제도 및 마름질과 바느질 등 제작을 위해 필요한 각 부위별 명칭이 있다. 하지만 어떤 명칭들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남한과 북한의 한복구성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구성상 부분 명칭은 민저고리의 경우 길, 소매, 셀, 깃, 고름, 동정이 있다²⁸⁾. 또한 제작에 소용되는 부위별 명칭은 화장, 진동, 배래, 부리, 도련, 고대, 셀선, 셀코, 셀머리, 옆선, 깃머리 등이 있으며, 그 외 각 부위의 길이나 너비 치수를 나타내는 명칭이 있다. <그림 1>은 북한 여자 저고리의 구성상 부분 명칭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저고리 부분명칭을 구성상 길, 셀, 소매, 셀, 고름으로 나누어 구성 및 제작에 필요한 명칭을 함께 비교하여 보았다(<표 2> 참고). 그 결과 남북한에서 사용되는 저고리 명칭은 동일한 경우도 많았지만 일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 남북한 간에 명칭상 차이가 나는 것은 다음과



〈그림 1〉 저고리 구성상 부분 명칭(북한 저고리)

〈표 2〉 여자저고리의 부분명칭(남북한 비교)

길	섶	소매	깃	고름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앞길	앞길	걸섶(앞섶)	걸섶	활기(화장)	화장	앞깃(걸깃)	걸깃
뒤길	뒤길	아래섶	안섶	진동	진동	아래깃	안깃
도련	도련	(안섶)		소매마루	-	뒤깃	뒤깃
등바대	등바대	셀코	셀코	어복	소매통	동정	동정
결바대	결바대	섶머리	섶머리	배래선	배래	고대(뒤고대)	고대
어깨마루	-	걸섶달선	걸섶선	(배래기)	부리	앞고대	-
(길어깨 마루)		(앞섶달선)			끌동	-	고대점
마루)		아래섶달선	안섶선		끌동	깃머리	깃머리
옆선	옆선	앞섶안내 자리	-	소매기슭	소매단	깃머리안내점	-
(아래옆 달선)		섶웃끌자리	-			걸깃끌(앞끌)	-
옆선자리	-	안내선				아래깃끌	-
옆도련자리	-	앞섶밀자리	-			깃마루	-
등골선	등솔선	걸섶웃너비	걸섶위			깃점	-
뒤도련선	뒤도련선	걸섶아래 너비	나비			깃안내선	-
(뒤기슭선)		(걸섶밀 너비)	걸섶아래 나비			깃너비	깃나비
앞도련선	앞도련선	안섶웃너비	안섶위			앞깃달선	-
웃풀	풀 2	안섶아래 너비	나비			뒤깃달선	-
		안섶아래 너비	안섶아래 나비			아래깃달선 (안깃달선)	-

같이 세종류로 분류되었다. 첫째 남북한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같으나 명칭은 다른 것, 둘째 명칭이 같으나 의미는 다른 것, 셋째 북한에서만 사용하며 남한에는 없는 것이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미는 같으나 명칭이 다른 경우

남북한이 하나의 부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소매통-어복, 화장-활기, 등솔선-등골선, 배래-배래기(배래선) 등이 있다.

2. 명칭이 같으나 의미는 다른 경우

동일한 명칭이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바는 다른 경우로 '안깃달선'은 북한에서는 저고리 안쪽에 깃(안깃)을 감쳐 붙이는 선을 의미하는 반면 남한에서는 저고리 오른쪽길의 곁에 안깃을 붙이는 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3.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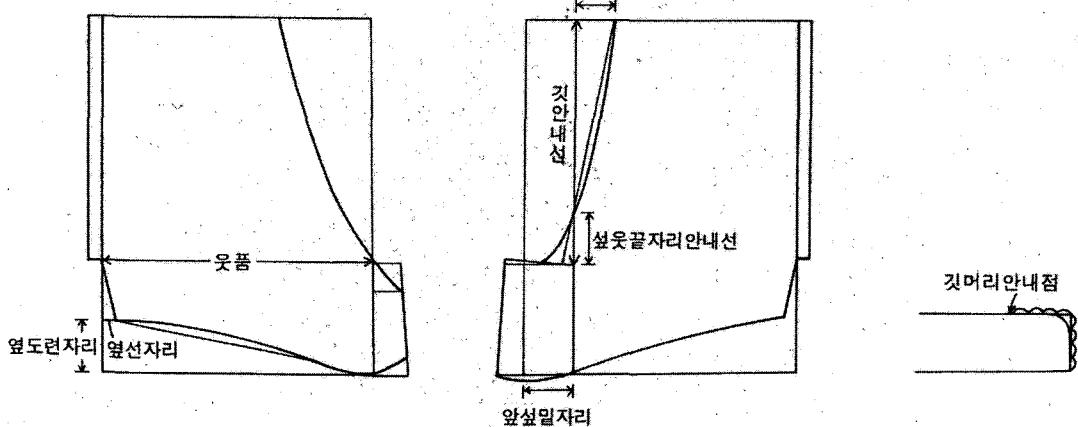
북한에서만 사용하며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명칭으로는 고유 우리말을 계승하여 복합어로 만든 것과 과학적인 제도법을 위하여 새롭게 만든 용어들이 있었다.

먼저 순수 우리말인 '마루' '기슭'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깨마루, 소매마루, 깃마루, 저고리기슭, (뒤)기슭선, 소매기슭 등이 있었다. '마루'란 길게 등성이진 지붕이나 산의 꼭대기를 뜻하는 것으로 어깨마루는 저고리 길의 어깨선이며, 소매마루는 어깨에서 내려오는 소매선이며, 깃마루는 깃의 웃선을 가리킨다. '기슭'이란 옷의 자락이나 소매, 가랑이 등의 끝부분으로 저고리 기슭은 저고리 자락이며, (뒤)기슭선은 (뒤)도련선이며, 소매기슭은 소매단을 가리킨다.

그리고 제도 마름질 바느질 등 의복제작에 필요한 각 부위별 명칭은 남한에 비해 북한에서 더욱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다. 이러한 명칭의 예로는 길부위의 옆도련자리, 옆선자리, 쇄부위의 앞섶안내자리, 앞섶밀자리, 쇄웃끌자리안내선, 깃안내선, 깃머리안내점, 안깃달선, 앞고대 등이 있다(〈그림 2〉 참조). 이처럼 북한에서는 저고리 제작에 필요한 명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공식적인 명칭으로 통일되어 있는 반면, 남한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임의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각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구체적인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옆도련자는 옆도련이 놓이는 자리를 위한 것으로 저고리 뒷길이에서 옆도련까지의 길이를 제외한 치수이다.



〈그림 2〉 앞길, 깃부위의 부분명칭(북한저고리)

옆선자는 옆선이 도련선상에 놓이는 위치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옆선의 아래단이 도련선 안쪽으로 들어간 치수이다.

앞섶안내자는 앞섶(겉섶)을 안내하는 자리로 고대선 상에 위치한다.

앞섶밑자는 앞섶(겉섶)이 아랫단에 위치하는 자리를 가리킨다.

깃안내선은 쇠선 상에 깃이 놓이는 위치를 안내하는 선이다.

섶웃끌자리안내선은 쇠의 위 끝부분을 안내하는 선으로 깃머리와 동일한 길이가 된다.

깃머리안내점²⁹⁾은 깃머리를 둥글게 만들기 위한 지점을 가리킨다.

안깃달선은 저고리 안감에 안것을 감쳐붙이기 위한 선이며, 앞고대는 앞쪽의 깃고대를 가리킨다. 이처럼 다양한 용어의 발전은 북한이 조선옷 설계에 있어서 과학적인 발전을 추구하면서 학술적인 체계를 세우고자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 저고리 부분 명칭의 차이는 남북한이 함께 사용하는 용어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비교적 적었지만,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의 경우는 매우 지엽적인 부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남북한 용어의 차이가 컸다.

IV. 여자 저고리 제도

1. 제도를 위한 신체치수

저고리 제도시 필요한 치수는 각 부분별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치수들은 가슴둘레, 화장, 등길이나 키 등의 신체치수를 근거로 산출되어왔다. 그러나 기본적인 신체치수들은 남북한 자료들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가슴둘레는 품, 진동, 고대 등의 치수를 산출하는데 사용되었다. 가슴둘레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앞가슴의 제일 높은 곳을 지나도록 재었으나 남한에서는 윗가슴둘레를 재는 경우도 있었다³⁰⁾.

둘째, 화장 길이를 측정할 때 남한에서는 팔을 45° 각도로 들어 뒷목점에서 어깨끌점을 지나 손목

점까지 재었으나, 북한에서는 팔을 내린 자세로 뒷목점(7목등뼈)에서 어깨끌점을 지나 손목점(손목복사뼈)까지 재었다³¹⁾.

셋째, 저고리 길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체치수를 이용한 경우 남한에서는 대부분 등길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북한에서는 가슴둘레 혹은 가슴둘레와 키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신체치수 대신 유행 등에 따라 저고리 길이를 임의로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남북한 모두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었다.

한편 이상과 같이 기본적인 신체치수 이외에 세부적인 신체치수의 측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한에서는 권영숙(1986)³²⁾의 저고리 제도와 최근의 생활한복 저고리 제도시에, 북한에서는 변순애(1998)³³⁾의 새로운 과학적 설계방안을 시도한 제도법에 사용되었다. 변순애의 새로운 제도법은 서양복 원형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연구에서 제외되었으나 신체치수에 대한 항목을 간단히 살펴보면 과거의 기본치수인 입는키, 웃풀, 목풀, 화장길이로서는 몸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없으므로 입는키, 웃풀1, 웃풀2, 웃풀3, 어깨풀, 등풀, 화장길이, 가슴풀, 목풀, 소매길이를 새로운 항목으로 정하였다. 또한 몸매를 분석하여 젖힌형, 굽은형, 높은 어깨, 낮은 어깨, 허리깊이 등을 고려하였다. 이 제도법의 목적은 저고리의 형태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어깨구김현상과 저고리가 뒤로 젖혀지는 현상, 걸을 때 소매 배래선이 앞으로 나오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제도를 위한 각 부분별 치수

북한의 저고리 제도를 길부위, 소매부위, 쇠부위, 깃, 고름, 동정부위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치수를 분석함으로 제도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3〉~〈표 6〉) 그 중 자료1(1991)은 각 부분별 치수가 일정한 수치로 결정되어 있었으므로 분석 자료로서 적절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자료5(2000)는 각 부분별 치수를 지나치게 산술적인 계산식으로 정해두어 기준의 제도법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남한의 제도와 비교하기 위하여 김분칠(1976), 권계순(1977), 박경자·임순영(1983), 조정희(1984), 이주원(1987), 손경자(1990), 흥나영·김남정·김정아·김지연(2004)

의 자료를 사용하였다(<표 7> 참고)³⁴⁾. 이하 표에 사용된 단위는 cm임을 밝혀둔다.

1) 길부위

(1) 저고리 길이

저고리 길이는 남북한 모두 유행에 따라 일정한 길이로 정하거나 혹은 신체치수를 근거로 산출하였다.

북한에서는 저고리 길이를 일정한 치수로 정할 때 유행에 따르거나 치마의 종류에 따라 정합으로서 전체길이에 대한 비례로 미적인 측면이 고려되었다. 신체를 기준으로 저고리 길이를 산출한 경우에는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거나 혹은 가슴둘레와 키를 기준으로 하였다.

남한 역시 저고리 길이는 유행에 따라 일정한 치수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김분칠(1976)과 손경자(1990)는 등길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상 전반적으로 북한의 저고리 길이가 남한에 비해 다소 길었으며, 치수의 기준이 되는 신체부위는 가슴둘레나 키가 사용되어 남북한 간에 차이가 있었다.

(2) 저고리품 (품/2)

저고리품은 남북한 모두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정한 여유량을 두었다. 여유량의 범위는 북한의 경우 1.5~2cm, 남한의 경우 1~3cm였다.

(3) 고대너비/2

고대너비는 남북한 모두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한

경우가 많았으며, 간혹 옷의 품을 기준으로 하였다.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한 것은 서양복 구성을 활용한 것이지만 옷풀을 기준으로 한 것은 품의 비례치를 적용한 것으로 전통적 구성법이다. 북한이 남한에 비해 옷풀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4) 고대깊이

고대깊이는 북한의 경우 1cm였으나 남한의 경우 0.5cm, 0.7cm, 1cm등으로 다양하였다.

(5) 옆도련자리(옆선길이)

옆선길이는 남북한 모두 일정한 치수로 정하여두거나, 진동아래에 남은 저고리길이를 비례치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옆선길이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길었지만 2000년대 이후 남한과 비슷하게 짧아졌다. 반면 남한에는 최근 복고풍의 영향으로 다시 옆선길이가 길어지는 추세에 있다.

(6) 옆선자리

옆선자리는 옆선의 아래단이 도련선 안쪽으로 들어간 치수로 북한에서는 0.5cm인 경우가 많았으며, 옆선길이가 일직선으로 내려온 경우(옆선자리: 0cm)도 있었다. 남한에서도 0cm, 0.5cm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권계순(1977)의 자료에서는 1cm였다.

(7) 앞처짐

북한 저고리의 앞처짐은 91년도에 4.7cm에서 점차 짧아져 그후 3~3.5cm로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표 3> 길부위의 치수(북한 저고리)

자료명	자료1 (1991)	자료2 (1995)	자료3 (1995)	자료4 (1999)	자료5 (2000)	자료6 (2001)	자료7 (2002)	자료8 (2002)
저고리길이	28	가슴둘레 4 +6	26	유행, 치마종류에 따라	가슴둘레 8 + 키 8 - 4 ~ 4.5	가슴둘레 4 + 6	일정길이	(뒤) 길이 (앞) 길이 +1
저고리풀 ($\frac{\text{풀}}{2}$)	$23.5+2\times 2$	가슴둘레 4 + 2 + 1.5	가슴둘레절반 2	가슴둘레 4 + 2(1.5)	가슴둘레 4 + 여유량 4	가슴둘레 4 + 2	가슴둘레절반 2 + 1.5	가슴둘레 4
고대너비 2	8.25	풀 3	가슴둘레절반 4	가슴둘레 10 - 0.5	가슴둘레절반 8 + 2.5~3	저고리풀 2 × $\frac{1}{3}$	옷풀 3	가슴둘레 10 - 0.5
고대깊이	1	1	1		1	1	1	1
옆도련자리 (옆선길이)	6.8	(저고리길이 -진동) × $\frac{2}{3}$	5.2	(저고리길이 - 진동) × $\frac{2}{3}$	1.5	(저고리길이 - 진동) × $\frac{1}{3}$	옆선-2.5	(저고리길이 - 진동) × $\frac{1}{2}$
옆선자리	0.5	0	0.5	0, 0.5, 1		0	0	0.5
앞처짐	4.7	3.5					3.5	3
등골선길이	0.2				0.5			0.7

에는 80년대 이후에 이미 3~4cm로 짧아졌다.

영향을 받은 것이다.

(8) 등골선(등솔선) 깊이

전통저고리에서 등솔선은 일직선이지만, 북한의 경우 일반적으로 바느질할 때 도련으로 내려오면서 0.2cm 혹은 0.5cm 혹은 0.7cm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 제도법은 저고리 등부위에 생기는 여유분을 줄여주므로 과학적인 제도법을 추구해온 북한 조선옷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남한 저고리의 등솔선은 일직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개량한복에서는 등솔선을 사선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2) 소매부위

(1) 소매길이

소매길이는 화장(활기)에서 품을 제외한 치수이지만, 북한에서는 진동선이 소매방향으로 1-2cm 들어와 소매길이는 그만큼 짧아져 있다. 이러한 구성 법은 전통 저고리 제도법을 고수한 것이다. 반면 남한에서는 대부분 진동선의 위치가 옆선과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다만 김분칠(1976)의 제도에서는 진동선이 소매방향으로 1cm 이동해 재래식 방법을 따르고 있다.

(2) 진동길이

진동길이는 북한의 경우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정한 치수로 정하여 두거나 저고리 길이를 기준으로 등분비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남한에서는 대부분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손경자(1990)의 제도에서만 길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한 것은 서양복 구성의

(3) 어북너비(소매통)

소매통의 치수는 진동에 여유분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자료1(1991)과 자료2(1995)의 경우 여유분의 양이 적어 소매통이 좁았으며, 그 외 대부분 여유량은 3-4cm정도였다. 이처럼 소매통은 과거에 비해 넓어지는 추세이며, 자료7(2002)에 의하면 소매통의 가장 넓은 부위가 중앙에서 부리방향(소매길이의 2/3아래 부분)으로 이동하여 소매모양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한의 소매통 역시 진동길이에 여유량을 더하여 정하였으며, 여유량은 70년대에는 3cm, 80년대에는 2~4cm, 90년대 이후 자료에는 1~1.5cm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소매통의 가장 넓은 부위는 소매의 중앙이었지만 이 불倜감은 부리방향으로 계속 이동되었다. 박현³⁵⁾은 60년대의 저고리 배래선은 긴장된 곡선이었으나 70년대에는 아래로 처진 곡선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 저고리의 소매는 그동안 통이 좁으며 가장 넓은 소매통의 위치가 중앙에 위치함으로 날렵한 배래선으로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나, 최근 남한의 소매통과 유사한 제도로 변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4) 부리

북한에서는 소매통이나 진동을 기준으로 하거나, 일정한 치수로 정해두기도 하였다. 남한의 경우에는 대부분 진동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4〉 소매부위의 치수(북한 저고리)

자료명	자료1 (1991)	자료2 (1995)	자료3 (1995)	자료4 (1999)	자료5 (2000)	자료6 (2001)	자료7 (2002)	자료8 (2002)
소매길이	활기- $\frac{\text{풀}}{2}$ -(1~1.5)	활기- $\frac{\text{풀}}{2}$	활기- $\frac{\text{풀}}{2}$ -1	활기- $\frac{\text{풀}}{2}$	활기- $\frac{\text{풀}}{2}$ -(1~1.5)	활기- $\frac{\text{풀}}{2}$	활기-풀	활기- $\frac{\text{풀}}{2}$ -1
진동길이	20.2	저고리길이× $\frac{3}{4}$	가슴둘레절반 3 + 5.5	가슴둘레 4 (혹은유행에따라)	가슴둘레 6 + 6	앞길이× $\frac{11}{16}$	21.5	가슴둘레 4
어북너비 (소매통)	21.5	진동+ $\frac{\text{옆선길이}}{3}$	진동+3.5	진동+3~4 (혹은유행에따라)	진동길이+3	앞길이× $\frac{3}{4}$	25	진동+3
부리	11.8	소매통× $\frac{3}{5}$	진동 2 + 1.5	12		소매통× $\frac{3}{5}$	12	소매통 2

〈표 5〉 셀부위의 치수(북한 저고리)

명칭		자료1 (1991)	자료2 (1995)	자료3 (1995)	자료4 (1999)	자료5 (2000)	자료6 (2001)	자료7 (2002)	자료8 (2002)
앞섶 너비	위	6.4	고대× $\frac{3}{4}$	5	깃너비+1.5	섶너비자리(1.2) +깃너비(5)+ 고름 달분량(0.3)	고대× $\frac{3}{4}$		5.4
	아래	6.7		4	곁섶웃너비 +1.5	앞섶웃너비+0.5	고대× $\frac{3}{4}$	앞섶위너비와 동일	5.6
앞섶안내자리		고대너비× $\frac{2}{5}$ 정도		고대너비× $\frac{1}{3}$	고대너비× $\frac{1}{2}$	고대너비× $\frac{1}{3}$	고대너비× $\frac{1}{2}$	고대너비× $\frac{1}{2}$	고대너비× $\frac{1}{2}$
앞섶밀자리		앞섶안내자리와 동일	앞섶안내자리-0.5		앞섶안내자리 -0혹은1	앞섶안내자리 -0.5	앞섶안내자리 와 동일		앞섶안내자리 -0.5
아래섶길이			저고리길이 4 + 앞처짐(3.5)	7.7					
아래섶 너비	위	2.5	2.5		보통3cm정도		2.5	2.5	
	아래	3	3.5	2.5	3~3.5		3.5	3.5	곁섶아래너비 2

3) 셀부위

(1) 앞섶너비

북한의 경우 앞섶너비는 일정한 치수로 정하거나 고대 혹은 깃너비를 기준으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하여졌다. 고대를 기준으로 한 경우는 너비 항목의 비례치를 적용한 것이다. 남한 역시 일정한 치수로 정하거나 깃나비 혹은 품 혹은 셀길이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2) 앞섶안내자리

앞섶안내자는 고대상에 걸션이 놓이는 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앞중심에서 고대의 1/2선 혹은 2/3선 인쪽에 놓이기도 하였으며 고대와 상관없이 앞중심선에 셀의 중앙이 놓이도록 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셀선의 위치는 점차 길의 중앙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한의 경우 대부분 고대와 상관없이 앞중심선을 기준으로 놓였으며, 한쪽 길의 고대를 기준으로 1/2선 등에 놓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셀선의 위치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2004년의 자료에는 셀선의 거의 앞중심선으로 이동하여 큰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남북한 모두 셀선이 중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정도는 남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3) 앞섶밀자리

앞섶안내자가 아랫단에 위치하는 지점으로 앞섶안내자리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오거나 그보다 0.5

cm 중앙으로 이동하여 셀선이 기울기도 하였다.

북한의 경우 중앙으로 이동한 거리는 0~0.5cm인 반면 남한의 경우 0~1cm 혹은 2cm 이상으로 경사도가 더 컸다.

(4) 아래섶길이

섶길이에 대한 자료는 적었으나 일정한 치수로 정하기도 하였으며 자료2(1995)에는 복잡한 계산식이 제시되었다. 남한에서는 곁섶길이나 옆선길이에 준하기도 하였다.

(5) 아래섶너비

북한의 아래섶너비는 일정한 치수로 정한 경우가 많았으며, 남한에서는 곁섶나비 혹은 깃나비를 기준으로 하였다.

4) 깃, 고름, 동정부위

(1) 깃길이

깃길이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지만, 북한은 최근 들어 깃길이가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료4(1999)에 의하면 입체설계에 의해 개조되고 현대화된 여자저고리 깃길이는 종전보다 4~5cm 길게 한다고 하였다³⁶⁾.

(2) 깃너비

북한에서는 대개 4.5~4.3cm정도로 일정한 치수로 정해져 있어 유행에 따르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근

〈표 6〉 깃, 고름, 동정부위의 치수(북한 저고리)

명칭	자료1 (1991)	자료2 (1995)	자료3 (1995)	자료4 (1999)	자료5 (2000)	자료6 (2001)	자료7 (2002)	자료8 (2002)
깃	걸깃 너비 아래깃길이 깃안내선	길이 4.8 걸길길이+5	24.3 4.5 27.8	진동길이 (또는유행에따라) 앞깃+갓나비				
					뒷고대너비×2 +(4~5)			
	고름길이			짧은고름:활기길이+20			짧은고름:활기+30	긴고름:105~120 짧은고름:100~110
	동정너비			너비:갓나비× $\frac{2}{5}$ (1cm정도)				

〈표 7〉 저고리 부위별 치수(남한 저고리)

명칭	김분길 (1976)	권계순 (1977)	박경자, 임순영 (1983)	조정희 (1984)	이주원 (1987)	손경자 (1990)	홍나영 외 3인 (2004)
길	길이	동길이 - $\frac{\text{동길이}}{3}$	저고리길이	저고리길이+0.5	대, 중, 소	저고리 길이 (동길이 - $\frac{\text{동길이}}{4}$) - 앞처짐	대, 중, 소
	풀 $\frac{2}{2}$	($\frac{\text{가슴둘레}}{2} + 3 \times \frac{1}{2}$) × $\frac{1}{2}$	$\frac{\text{가슴둘레}}{4} + 2.5 \sim 3$	$\frac{\text{가슴둘레}}{4} + 2$	$\frac{\text{가슴둘레}}{4} + 2$	$\frac{\text{가슴둘레}}{4} + 1.5 \sim 2$ ($\frac{\text{가슴둘레}}{2} + 5 \times \frac{1}{2}$) × $\frac{1}{2}$	$\frac{\text{가슴둘레}}{4} + 1$
	고대나비 $\frac{2}{2}$	$\frac{\text{가슴둘레}}{2} + \frac{\text{갓나비}}{4}$	$\frac{\text{가슴둘레}}{10}$	$\frac{\text{가슴둘레}}{10} - 0.5$	$\frac{(\text{풀} + \text{풀})}{4} - 0.5$	$\frac{\text{가슴둘레}}{10} - 0.5$	$\frac{\text{가슴둘레}}{10} - 0.5$
	고대깊이	1	1	0.5	?	1	0.7
	옆선길이 (옆도련자리)	(길이 - 진동) × $\frac{2}{3}$	$\frac{\text{동기장}}{4}$ - 진동 × $\frac{1}{2}$	(저고리길이 + 0.5) - 진동 × $\frac{1}{2}$	(길이 - 진동) × $\frac{4}{5}$	(길이 - 진동) × $\frac{1}{2}$	길이 × $\frac{3}{16}$ (길이 - 진동) × $\frac{1}{2}$
	옆선자리	0.5	1	0	0	0.5	0.5
	앞처침	3	2~3	3~4	3.5	3~4	앞길이 × $\frac{1}{4} \times \frac{1}{3}$
	소매길이	화장 - 2 - ($\frac{\text{풀}}{2} - 1$)	화장 - $\frac{\text{풀}}{2}$	화장 - $\frac{\text{풀}}{2}$	화장 - 풀	화장 - 풀	화장 - 풀
소매	진동길이	$\frac{\text{가슴둘레}}{4}$	$\frac{\text{가슴둘레}}{4}$	$\frac{\text{가슴둘레}}{4}$	$\frac{\text{가슴둘레}}{4}$	앞길이 × ($\frac{3}{4} - \frac{1}{16}$)	진동 + 1 ~ 1.5
	소매통	진동 + 3	진동 + 3	진동 + 2~3	진동 + 2~3	앞길이 × $\frac{3}{4}$	$\frac{\text{가슴둘레}}{4} + 0.5 + 1 ~ 1.5$
	부리	진동 × $\frac{3}{5}$	진동 × $\frac{2}{3}$	결정	진동 × $\frac{3}{5}$	진동 × $\frac{3}{5}$	진동 × $\frac{3}{5}$
	걸섶 너비 아래	위		갓나비 + 1 ~ 1.5			갓나비 + 1
섶	안섶길이	걸섶길이	(앞길이 - 진동) $\times \frac{2}{3} + 1$	윗섶 + 0.5	$\frac{\text{풀}}{8}$ 정도	일정치수	갓나비 + 1.2
	안섶 너비 아래	위	$\frac{\text{걸섶나비}}{4}$	$\frac{\text{갓나비}}{2}$	1		
	걸깃 너비	아래	$\frac{\text{걸섶나비}}{2}$	위너비 + 1	갓나비 - 1	걸섶 × $\frac{2}{3}$	걸섶아래나비
깃	걸깃 너비	길이			$\frac{\text{가슴둘레}}{4}$		$\frac{\text{가슴둘레}}{4} + 5$
		넓나비 × $\frac{3}{4}$			걸깃 + 갓나비 + 1	$\frac{3}{4}$	걸깃길이 + 5~6
고름	안깃길이		걸깃길이 + 5~6	걸깃 + 갓나비 + 1	걸깃 + 5cm내외		걸깃 + 5~6
	긴고름길이			105	90~110	110~120	90~100
	짧은고름길이			90	85~105	100~110	긴고름 - 15
	너비			6	5.5	6~7	90~100
							5~6

자료6(2001)에는 겉섶윗너비를 기준으로 등분비를 사용하였다. 남한의 경우 겉섶나비를 기준으로 하거나 일정한 치수로 정하기도 하였다.

(3) 고름길이

북한의 경우 일정한 길이를 정하여 두거나 활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저고리는 입었을 때 고름과 소매가 모두 길이방향으로 놓이므로 활기를 기준으로 고름길이를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치수 산출법이라고 판단된다. 남북한 모두 고름길이는 길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4) 동정너비

자료4(1999)에 의하면 입체설계로 된 저고리의 경우 1~1.2cm 이하로 좁혀 탄력있어 보이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동정너비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에 있어서 전통복식의 계승 작업 가운데 드러난 차이점을 여성 저고리의 구성적 변화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남북한 여자 저고리의 종류, 각 부위별 명칭, 제도법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저고리 종류를 형태및 제작법에 따라 분류하여 남북한 상호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1) 저고리의 형태별 분류에 의하면 남북한은 모두 보통저고리, 회장저고리, 색동저고리의 전통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점에서 동질성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형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이질성이 드러났다. 즉 북한은 전통한복 형태의 전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그동안 과학적인 근거로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형태 변형을 극도로 제한시키고 전통성을 유지하였다. 반면 남한에서는 전통적인 형태 외에도 다양하게 변화된 생활한복이 등장하여 전통성과 현대성의 두 측면을 추구한 것으로 나타

났다.

2) 저고리 제작법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남한의 저고리 종류가 북한에 비해 더 다양하였다. 최근 남한에서는 솜저고리, 누비저고리 등 전통 계승을 위한 복원작업으로 다양한 제작법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민족적 전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실리적이고 경제적인 면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저고리형태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저고리의 종류에 있어서 최근 북한의 적삼은 남한의 깨끼저고리와 동일한 것을 지칭하였으며, 북한의 겹저고리는 남한의 물겹저고리와 동일하여 저고리 명칭에 있어서 남북한 상호간에 일부 이질성도 보였다.

2. 남북한에서 사용되는 저고리 구성상의 부분 명칭은 동일한 경우가 많았지만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남북한 용어의 이질성이 커졌다. 이질성이 있는 명칭은 다음의 세 유형으로 분류되어졌다.

1) 의미는 같으나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남한-북한의 용어를 묶어 보았을 때 소매통-어북, 화장-활기, 등솔선-등골선, 배래-배래기 혹은 배래선 등이 있다.

2) 명칭이 같으나 의미는 다른 경우로는 ‘안깃달선’을 들 수 있다.

3)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명칭으로는 ‘마루’ ‘기슭’ 등 우리말을 계승하여 복합어로 만든 것과 과학적인 제도법을 위하여 새롭게 만든 용어들이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어깨마루, 소매마루, 깃마루, 저고리기슭, (뒤)기슭선, 소매기슭 등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옆도련자리, 옆선자리, 앞섶안내자리, 앞섶밑자리, 셀웃끌자리안내선, 깃안내선, 깃머리안내점, 안깃달선, 앞고대 등이 있다.

3. 남한과 북한에 있어서 제도법의 변화와 상호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전통적인 저고리 제도법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남한은 서양복구성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많이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고대나비,

진동길이, 앞섶너비 등 각 부위별 치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비례치를 활용하는 예가 많았으며, 진동 선의 위치도 전통 제도법을 유지하였다. 그에 비해 남한의 제도법은 각 부위별 치수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자료마다 다양성이 보였으며, 서양복구성의 치수설정 방법을 많이 활용하였다.

2) 북한의 제도법은 미적인 측면의 추구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을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술선의 사선 처리법 역시 전통 저고리의 직선 제도법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합리성을 추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제작에 필요한 부위별 명칭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설계 및 가공과정에 필요한 용어의 학술적 정립을 위한 작업이 매우 활발하였다.

3) 북한 저고리의 각 부위별 구성 변화는 북한이 남한의 경향을 뒤따르면서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남한 저고리의 구성변화가 현대적 미감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쇠선의 위치가 중앙으로 이동하거나 소매통의 가장 넓은 위치가 부리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 앞처짐이 짚아지는 현상, 옆선길이가 짚아지는 현상 등 제도상의 변화를 볼 때 남한이 유행을 선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 남북한은 분단된 이후 모두 전통 복식문화의 계승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남북한 전통복식의 구성적 측면이라는 일부분만을 고찰한 것이지만 상호간에 이질적인 면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디자인 측면에 관한 연구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이종석(2000). 새로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 평사, p. 123.
- 2) 남인숙(1990). 북한의 가정생활실태: 의식주생활과 여성. 북한연구, 1(1).
- 북한총람(1983, 1986, 1994, 2003). 서울: 북한연구소.
- 3) 주강현(1991). 북한민속학사. 서울: 이론과 실천사.
- 이선재(1993). 북한주민의 복식에 관한 고찰. 북한문화 연구, 1.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주강현(1994).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북한 생활풍습 50년사. 서울: 대동.
- 4) 김여경(2001). 북한 전통복식문화 연구-조선옷의 전통 계승과 현대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1990). 조선민족풍습. 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 백옥련(1996). 우리옷의 선에 관한 고찰. 조선 고고연구, 2, 평양.
- 김옥경(2003). 전통적인 꼬리치마저고리. 민족문화유산, 3.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 52~53.
- 6) 오순기, 장정희(2000). 옷설계와 재단. 평양: 공업종합출판사.
- 변순애(1998). 기본옷본에 기초한 조선옷의 새로운 설계방법. 과학의 세계, 120, 평양: 중앙과학기술통보사, pp. 67~71.
- 7) 리유미(1995). 조선민족옷. 평양: 경공업위원회 폐복연구소.
- 리유미(1999). 아름다운 조선옷. 평양: 공업종합출판사.
- 경공업성 폐복연구소(2002). 민족옷. 평양: 외국문 인쇄공장.
- 8) 리유미(1999). 앞의 책, p. 72.
- 9) 리유미(2003). 조선옷-바지저고리. 민족문화유산,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 42~43.
- 10) 천석근(1991). 옷과 옷차림. 사회주의 생활문화백과, 2. 평양: 균로단체출판사편, p. 194.(오늘 조선옷차림이라고 하면 주로 여자옷차림과 어린이명절옷차림을 넘두어 두고 말하는 것으로 된다.)
- 11) 천석근(1991). 위의 책.
- 경공업위원회 폐복연구소(1995). 조선민족옷. 평양: 외국문종합출판사 인쇄공장.
- 리유미(1995). 조선민족의상. 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 리유미(1999). 아름다운 조선옷. 평양: 공업종합출판사.
- 오순기, 장정희(2000). 옷설계와 재단. 평양: 공업종합출판사.
- 리유미 외 2인(2001). 옷도안과 설계. 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 경공업성 폐복연구소(2002). 민족옷. 평양: 외국문 인쇄공장.
- 김옥녀 외 7인(2002). 옷본보기. 평양: 경공업성폐복연구소.
- 12) 정영철(1996). 북한 '인민' 생활세계 연구. 96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원, p. 31.
- 13) (기록영화)조선옷 품평회(1994). 평양.
- 14) 변순애(1998). 앞의 책, pp. 67~71.
- 15) 리유미(1999). 앞의 책, p. 162.
- 16) (기록영화)조선옷 품평회(1994). 평양.
- 조선의 치마저고리(2000). 평양.
- 17) 리유미(1999). 앞의 책, p.51.
- 18) 경공업위원회 폐복연구소(1995). 앞의 책, p. 51.
- 19)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겉박이란 재봉틈이 겉에 나타나게 박는 바느질로 혼술을 튼튼하게 하고 장식효

- 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 20) 경공업위원회 피복연구소(1995). 앞의 책, p. 55.
- 21) 천석근(1991). 앞의 책, p. 332.
- 22) 천석근(1991). 위의 책, p. 332.
- 23) 경공업위원회 피복연구소(1995). 앞의 책, p. 56.
- 24) 조선말대사전, p. 1191.
- 25) 통솔을 가리킨다.(참고: 조선말대사전, p. 258.)
- 26) 삼겹저고리는 물겹저고리에 심감을 한겹 더 넣어 만든 것이다.
- 27) 일부 자료는 고대를 포함시키고 있다.
- 28) 셀웃끌자리안내점 + 0.4cm
- 29) 이주원(1999). *한복구성학*. 경춘사, p. 173.
- 30) 리유미(1995). 앞의 책, p. 57.
오순기, 장정희(2000). 앞의 책, p. 199.
- 31) 권영숙(1986). 우리나라 여자저고리 원형설계에 관한
실험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2) 변순애(1998). 앞의 책, p. 67.
- 33) 김분칠(1976). *한복구성학*. 서울: 교문사.
권계순(1977). 우리옷변천과 재봉. 서울: 수학사.
박경자, 임순영(1983). *한국의상구성*. 서울: 수학사.
조정희(1984). *한복*. 서울: 형설출판사.
이주원(1987). *한복구성학*. 서울: 경춘사.
손경자(1990). *전통한복양식*. 서울: 교문사.
홍나영, 김남정, 김정아, 김지연(2004). *한복만들기*. 서울: 교문사.
- 34) 박현(1997). *한복의 사적고찰 및 조형적 분석-치마저고리의 선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4.
- 35) 리유미(1999). 앞의 책, p. 162.